

코스피	코스닥
2890.10 (-31.82)	957.90 (-13.49)
금리(국채 3년)	환율(원/달러)
2.148 (+0.104)	1192.70 (+5.40) (17일)



한화손해보험 com

심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시설중단, 제조원가 ↑ 시멘트 수급불안 가중

시멘트가 연초부터 수급 불안 조짐이다. 아파트 등 주택 건설에 따른 시멘트 수요 급증이 예고된 가운데 개별 시멘트사들의 생산시설(킬른) 대규모 보수까지 겹치면서다. 여기에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제조원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사들은 줄줄이 시멘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주택건설에 시멘트 수요 급증 시설 보수로 월 163만t 생산불가 이달 초 적정재고의 66%만 확보 내달 수급 불균형 현실화 예상 소성과정 필요 유연탄 값 올라 시멘트·레미콘 값 상승 불가피

1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사들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총 35개 킬른 가운데 1월 11개, 2월 13개, 3월 15개, 4월 8개 등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정기 보수를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이달에만 11개 킬른이 보수에 들어가면서 월 기준으로 163만톤(t)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1월 초 기준 시멘트 재고는 적정재고(126만t)의 66% 수준인 83만t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멘트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사들의 정기 대보수까지 맞물리면서 공장에서 생산과 동시에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보수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킬른을 제외하면 업계의 월평균 시멘트 생산량은 440만t 정도다. 하지만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킬른을 대보수하는 1~3월엔 월평균 생산량이 130만~180만t 정도 줄면서 실제 생산량은 280t 정도까지 뚝 떨어진다. 게다가 여기에 외부적인 변동 요인까지 감안하면 월 생산량은 260만t까지 감소한다.

이는 시멘트 하루 수요량 9만t을 감당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게다가 동절기 재고량도 충분치 않아 1~3월 부족한 생산량을 채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멘트업계에선 재고량과 생산량이 꾸준히 줄면서 당장 내달부터 수급 불균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주택 건설 시즌이 맞물리면서 자칫 시멘트 수급 대란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예년 같으면 1~2개월이면 충분하던 킬른 보수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설비 투자까지 겹치면서 기존보다 가동 중단 기간이 두배 이상 길어진 점도 생산량 부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소성과정에서 대규모로 들어가는 유연탄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도 업계에선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시멘트업계에서 수입한 유연탄은 334만t 정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이 254만t(76%)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80만t은 호주산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5일 당시 t당 73.4달러 수준이었던 유연탄(CFR 동북아 5750kcal/kg 기준) 가격은 올해 1월14일 현재 156.5달러로 급등했다. 지난해 10월22일 당시엔 221.9달러를 찍기도 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상공인 회생 아닌 ‘파산’ 채무조정 늘 듯

##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금융당국 “2년간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 대응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조치가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오는 3월 대출 만기연장 종료 무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당초 2020년 9월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2년간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을 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 외에 정책금융까지 생각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은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은행들은 자체 프리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

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취약차주에게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사전 지원하는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빚상환 부담’…파산신청하는 개인사업자 ↑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개인파산자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제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차주들이 대출을 갚기(개인회생·워크아웃 등)보다 탕감 받을 수 있는(개인파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가운데)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정몽규 “회장직 사퇴… 전국 건설현장 안전진단”

광주 사고아파트 완전철거·재시공 “현장 안전관리, 구조작업에 총력”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했다. 1999년 현산 회장직에 오른 이후 23년 만이다. 그룹 회장직과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정 회장은 사고 아파트의 완전 철거와 재시공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건(작년 6월9일 광주 학동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우선 지난해 6월9일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잇단 사고로 회사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광주시,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작업 중인데 앞으로도 신속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HDC현산 회장직 사퇴의 뜻을 밝히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지구 아파트는 안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과 품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HDC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다시 한 번 광주 사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NSC 상임위 긴급회의…“北 연이은 발사 매우 유감” /사진 뉴시스  
▲ 김충리 “올해는 ‘추월의 시대’ 원년…R&D에 과감한 투자”

▲ 민주, 김건희에 “최순실 시즌2” “천박” 맹공…尹도 비판  
▲ 국민의힘, ‘대장동 의문사’ 진상규명 위 가동…“제보자 신변보호할 것”



▲ ‘양자 토론’ 安, 선관위 항의방문·가처분 등 검토 /사진 뉴시스  
▲ 외교부 “日외무상 부당한 독도주장 항의…즉각 철회 엄중 촉구”